

2019년 정기대의원 총회 회의 결과

- 일 시 : 2019. 1. 25(금) 13:30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
- 참석인원 : 대의원 20명 중 19명 참석
 - 회 장 : 배호원
 - 대 의 원 : 이상민(서울), 이재홍(부산), 이창규(대구), 박등배(인천), 양대동(광주), 서거현(대전), 이채홍(울산), 김영기(경기), 이종찬(충북), 전용환(충남), 문정구(전북), 송진호(전남), 최경용(경북), 유현태(경남), 곽상윤(제주), 양재량(중고), 박용학(대학)
 - 감 사 : 길기완 (회계감사)

- 제23대집행부 2020도교올림픽 대비 비전 실행과제 목표에 대한 정책운영 방안 보고 및 추진목표달성에 대한 시도연맹과의 협업사항 공유함(사무처장)

- 성원보고 : 사회자
재적대의원 20명중 대의원 19명 참석으로 성원됨.

- 개회선언 : 배호원 의장

- 인 사 말 : 배호원 의장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2019년 새해를 맞아 대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대의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육상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

작년은 어려움과 희망이 공존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먼저,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결과를 보면, 한국육상은 금1, 은1, 동3 획득에 그치고, 메달 순위에서는 9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자 100m 허들에서 정혜림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노 골드'의 수모에서 탈피하여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세계 무대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중국(1위)과 일본(4위) 외

에도 인도(3위), 중동국가, 우즈베키스탄(7위) 등의 강세 속에, 이제 한국육상은 더 이상 아시아권에서 조차 상위권의 위치를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만큼 한국육상 앞에는 극복해야할 어렵고 힘든 과제들이 많아졌다고 보아야겠습니다. 다만, 한국 신기록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30년 만에 남자 200m 한국기록 경신, 21년 만에 여자 마라톤에서 한국기록을 경신하는 등 2년 연속 8개의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지난 3~4년 전의 한국기록 수립 부진 상황에서 탈피하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여기 자리하신 대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한국육상에게는 녹록치 않은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교수님들이 2019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임중도원(任重道遠)"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맡겨진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육상계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육상은) 국제경쟁력 강화, 육상 저변확대, 지도자 역량강화 등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는 데는 어떤 지름길이나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불굴의 정신력으로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목표기록을 달성하는 도전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이를 위해 올 한해 중점 추진해야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경기력 강화**'입니다.

먼저, 올해는 '아시아육상선수권(4월, 카타르 도하)'과 '세계육상선수권(9월, 카타르 도하)'이 모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2年前 대회 성적보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어야겠으며, 특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결승에 진출하는 종목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불과 1년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국제대회가 2020년 도쿄올림픽 전초전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고질적 문제점인, 전문체력 강화와 선진 육상기술 및 훈련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대표팀 전원이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여 정신력과 전문체력을 집중 강화토록 하여 대표팀의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쿄 올림픽을 대비하여 추진 중인 '마라톤 특별프로젝트'의 지난 해 진

척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5월 23일 손기정 기념공원에서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여자 마라톤 대표팀의 경우 김도연 선수가 2시간25분41초로 21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였고, 하프마라톤에서도 한국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남자 마라톤대표 8명은 작년에 미국 콜로라도 고지대에서 3차례의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했으며, 미국 현지 10,000m 대회에 참가한 마라톤 대표선수 8명 중 6명이 개인최고기록을 수립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마라톤 특별 프로젝트팀은 올 해에 더욱 철저히 정신무장과 훈련을 통해 목표한 기록들을 달성하며, 도쿄 올림픽 대비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야겠습니다.

둘째는 ‘지도자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육상 발전은 지도자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만큼 지도자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맹은 올해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및 선진기술 습득 강화를 위해서 도약, 중장거리, 경보 등의 전략종목을 대상으로 해외우수지도자 초청 지도자 세미나 운영을 확대하고, KAAF 지도자교육과정 참가인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도자들의 해외 지도자 세미나 파견 지원 또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입니다.

올해부터는 연맹 차원의 ‘차세대 발굴 육성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2022년 아시안게임과 2024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수 발굴을 위한 연맹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니어/청소년 선수 대상으로 ‘대표선수 상비군’을 운영하여 국가대표 후보군 육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육상 저변확대’입니다.

지난해 육상 등록선수 규모를 보면 5,525명으로 2017년 5,688명에 대비해서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등록선수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연맹에서는 신인발굴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육상 키즈프로그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육상 키즈프로그램’ 강습회와 순회지도, 키즈런 프로그램 개최 등 활동을 실행하고 학교체육 현장에서 육상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맹 재정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연맹은 지난 2018년 11월에, 데상트코리아와 2019년부터 4년간 국가대표 용품후원 스폰서십을 새롭게 체결하였으며, 종전 후원 계약 대비 후원 범위와 지원금 규모를 10%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주요 종합대회 현장에 참가관중을 확대하고 경기장내 에이 보드(A Board) 광고 유치 확대 등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며 연맹의 재정 자립기반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목의 저변확대의 차원에서 일반학교 학생들이 육상에 관심을 가지고 육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기록인증제)을 만들어 전국 학교학생들의 참여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육상연맹의 공정성’입니다.

대회운영의 공정성(심판선발과 대회 중 심판공정행위)입니다 우리연맹은 대회심판교육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정비리척결을 위하여(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승부조작, 편파판정,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폭력·성폭력행위) 사전 고지와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히 대처해 일벌백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육상연맹 윤리성확보입니다 우리연맹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윤리강령과 지침에 대하여 본 연맹집행부를 비롯한 각 시도 임직원들의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의원여러분들께서도 각 시도별 대회에서 반드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

최근 일부 종목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체육계 전체가 매우 혼란스러우며, 국민들과 정부차원에서 체육계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육상은 그 동안 특별한 잡음 없이 ‘클린(Clean) 육상’의 기초를 잘 유지해 왔으나,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육상계에서 만큼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사전예방 관리에 중점을 두어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12월말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 팀들의 운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육상계 스스로 가치를 높여야 하며, 그 것은 실력향상을 통한 인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올 한해는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한다는 자세로 한국육상 재도약을 위해 새롭게 도전하며 변화코자 합니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안건토의

[보고안건]

◇ 제 1 호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회의결과 보고]

사회자로부터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회의결과 보고]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접수함.

◇ 제 2 호 [감사보고]

사회자로부터 [감사보고]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 접수함.

◇ 제 3 호 [이사결원 및 보선 보고]

사회자로부터 [이사결원 및 보선 보고]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김동주이사
사와 이동운 이사 보선에 대하여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 승인함.

[의결안건]

◇ 제 4 호 [연맹정관 개정 승인]

사회자로부터 [연맹정관 개정 승인]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승인 의결함

◇ 제 5 호 [2018년도 사업결과 승인]

사회자로부터 [2018년도 사업결과 승인]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
의원 전원 이의 없이 승인 의결함

◇ 제 6 호 [2018년도 결산 승인]

사회자로부터 [2018년도 결산 승인]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승인 의결함

◇ 제 7 호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사무실임차료 사용의 건]

사회자로부터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사무실임차료 사용의 건]에 대하여 유인

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경기력지원비 적립금에서 일부를 차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인
의결함

◇ 제 8 호 [감사 선임의 건]

사회자로부터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다음과 같이 참
석대의원들로 부터 감사를 선임함

- 행정감사 : 최경용 대의원
- 회계감사 : 정우창 회계사

◇ 스포츠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육상인 결의문 을 참석이사들과 결의를 다
짐함.

◇ 폐회선언 : 15시 41분

2019. 1. 25.

기록 : 정영훈 국제과장
확인 : 김돈순 사무처장